



“버려진 아이, 지켜진 아이”

-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거리의 코피노,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



민킴(MHIN KIM)은 태어나 12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민킴을 임신하고 떠난 한국인 아빠에게 처음 버려진 후, 두 번째 버려짐입니다.

민킴은 그때부터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후미진 골목, 어느 빈민가에서, 거리의 고아로 이집 저집 옮겨 다니며 현재(만 3세)까지 길러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웃들이 서로서로 교대로 갓난아기 시절부터의 민킴을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킴을 돌봐주고 있는 할머니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형편의 가정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민킴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를 살 돈조차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한푼 두푼 빌려 가며 아이를 길러왔습니다. 현재 민킴이 살고있는 집은 양옆의 두 집 사이 난 작은 골목의 공간을 막아 지붕을 덧댄 장소인데, 뎅기열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세 살배기 아이가 지내기에는 더없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 모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냉정히 버려졌던 민킴의 삶은, 그럼에도 다시, 그곳 따뜻한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아 민킴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사) 메신저인터내셔널

- 법인성립일 : 2009년 10월 5일
- 등록기관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사역 대상 및 지역 :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코리안 필리피노) 아동 및 그 가정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한국인 아빠에게 버려져 빈민가에서 차별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아동들”



- 사역 목적 : 코피노 아이들이 출생의 배경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다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격려하여, 장차 사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함
- 사역 목표 및 기대 : ‘교육’과 ‘자활’을 목표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의 과정을 지원함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엄마들에게는 자활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해주고자 함
- 사역 내용 : 교육 지원 (공부방, 한글·악기학교, 합창단, 태권도 시범단, 장학금)
자활 지원 (구호 및 생계지원,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자립 지원금)
- 담당 사역자 : 필리핀 앙헬레스 센터 (조근묵, 최주영 선교사)
필리핀 세부 센터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
- 함께하는 사람들 :

- 이 사 장 : 김춘호
- 사무총장 : 김명기
- 이 사 : 김정순
박동찬
송병석
신상두
이인선
이인재
이정준
- 감 사 : 유봉환





메신저 사역

■ 메신저 본부 사역

- ◎ 본부 행정 - 사역 홍보 및 후원 모금
 - 후원자 발굴 및 관리 (후원자 & 수혜아동 결연)
 - 멤버스데이 행사 지원 (2022년은 팬데믹 상황으로 취소)
- ◎ 사역지 관리 - 각 센터(앙헬레스, 세부) 지원 및 관리 (매달 후원비 전달)
 - 코피노 아동 및 가정 지원 (교육, 구호, 재난 지원)
 - 선교사 가정 돌봄 (활동비 지원, 자녀 장학)

■ 2022 주요 사역

- ◎ 세부 (총 65가정) - 태풍 ‘라이’(구호품 및 재난지원금) 및 화재 피해 복구지원(콜도바, 팔도 지역)



작년 12월, 태풍 피해로 처참하게 무너진 세부 센터



7월, 화재 피해 입은 팔도(Pardo) 지역 재난 지원

- ◎ 앙헬레스 (총 98가정) - 건강 프로젝트(비타민, 해열제, 마스크 등) 및 코피노맘 자활 지원(現 6가정)



비타민 및 학용품 선물이 준비된 ‘패밀리 데이’ 행사



사리사리스토어(구멍가게) 창업 후 운영 중인 제임스네



메신저 재난 복구 특별 사역



초강력 태풍 ‘라이’ 피해 후, 다시 일어난 세부 - 세부 재난지원금 전달 사역 -



■ 온 도시의 파괴, 모든 가정의 피해

작년 12월 중순, 필리핀 중부에 불어닥친 태풍 ‘라이(Rai)’는 세부 전역을 휩쓸고 가며, 메신저 코피노 멤버 모든 가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할 연초가 절망 속에 시작되었고, 무너진 천장 밑에서 두려움 속에 흩어진 옷가지와 가재도구들을 그 지붕 없는 집에 다시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도시의 통신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메신저센터도 예외 없이 건물과 차량이 붕괴됐습니다.

■ 식수와 함께 전달된 희망, 각 가정에 재난구호금 지원

재난 상황이 되자 가장 필수적인 식수 가격부터 5배 이상 오르며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본사를 통해 직접 대량의 생수를 조달받아 각 가정에 식수 및 쌀을 전달했습니다. 도시 복구는 3개월이 지나도록 더디게 이뤄졌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Dengue fever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원의 폭을 넓혀가며, 마스크와 구호품을 전달했고, 총 65명의 가정에 재난지원금 5,000페소씩을 전달했습니다.





2022 메신저 회복 프로젝트

코피노 건강 프로젝트 !

- 앙헬레스 비타민 및 해열제 지원 사역 -



■ 감염병, Dengue열 등으로 면역력 중요성 높아져

2년 넘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개인 면역력 및 기초 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깨닫고 올해 초부터 ‘건강 프로젝트’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실직하는 엄마들이 늘어나자, 가난한 환경 속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충분한 음식이나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빈곤 가정들부터 비타민 및 해열제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역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비타민, 해열제, 상비약품, 마스크 등 지원 (하반기 상담 서비스 예정)

1월에 빈곤 30가정부터 시작하여 아동용 시럽 비타민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5월에 2차, 8월에는 3차분을 전 가정에 걸쳐 전달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어, 코피노 아동들 외에도 청소년 및 엄마들에게까지 성인용 알약 멀티비타민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및 상비약을 통해 방역 및 위생을 관리하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돌봄의 지원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만의 간절했던 만남

- 길었던 팬데믹을 지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 -

■ 비대면 영상 수업 후 첫 대면 학기 수업 준비

수도 마닐라와 근접하여 강력한 락다운(지역봉쇄)이 유지됐던 앙헬레스는 올해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영상으로 모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학교, 음악교실 등 1차(2~4월), 2차(6~8월) 수업이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첫 대면 학기 일정에 맞춰 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 2년 넘게 2단계로 진행되어온 한글 수업 참여 학생들은 이제 읽기와 듣기를 넘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 2년 6개월 만의 간절했던 만남, '코피노 패밀리 데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앙헬레스도 팬데믹이 완화되며 모임 허용도 올해부터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에 5월에 처음 본부 사무총장의 현지 방문과 더불어 20여명이 소규모 식사 모임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6월에 80여명, 8월에는 코피노 가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패밀리 데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며 영상수업 시간을 통해 오래 갈고 닦아온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연주,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별 사역 보고 II - 세부

팬데믹 시기, 더욱 특별했던 세부 공부방 -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

■ 불편함을 넘어선 학업 열정

3월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다시 모일 수 있었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학교마저 비대면으로 전환되자 센터는 소중한 교실이자 놀이터가 돼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학교 수업 도움과 한글, 영어교실, 수화,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맛있는 식사까지 더해지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활동으로는 4월에는 부활절 계란을 만들며 그 의미를 되새겼고, 5월에는 근처 바다로 호핑 투어를 떠나 시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바닐라드 센터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중한 추억을 새겼던 구 센터를 떠나 5월 말, 바닐라드 지역의 새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지인 밀집 주거지에 위치한 이번 센터는 더욱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6월 오픈된 센터에 매달 50여명의 아이들이 오가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2층 규모의 단독 건물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번 센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느새 키가 큰 아이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새 단계에 접어든 것을 볼 때입니다.





아동 소식과 기도 제목



“중학교를 졸업한 신애의 특별한 드레스”

2017년 KBS 1TV <다큐 공감>에 소개된 후 아직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있는 신애(17세)가 어느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립학교는 졸업할 때 일정 비용 지불 후 준비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문화가 있는데, 6월에 신애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얼마전 엄마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며 현재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 속에도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능률한 컴퓨터 공학도 대학생 삼형제”

야킴(23세), 유안(20세), 하늘이(21세)는 바기오에 있는 같은 대학(SLU)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경영을 공부하던 야킴은 컴퓨터로 전공을 옮기며 더욱 노력하고 있고, 음악에 관심이 많던 유안이는 컴퓨터를 활용해 멋진 음악을 만들어 냅니다. 하늘이는 컴퓨터 조립, 분해 및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인재입니다. 올해 첫 대면 학기를 시작하며 설렘과 기대가 큰데, 어려운 수업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고아지만 누구보다 사랑받고 자란, 잔디”

어린 시절 이웃집에 버려져 새엄마를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온 고아, ‘잔디(11세)’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새 가정에서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마저 심장병으로 입원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현재 (새)이모의 돌봄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잔디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학하며 장학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새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고 잔디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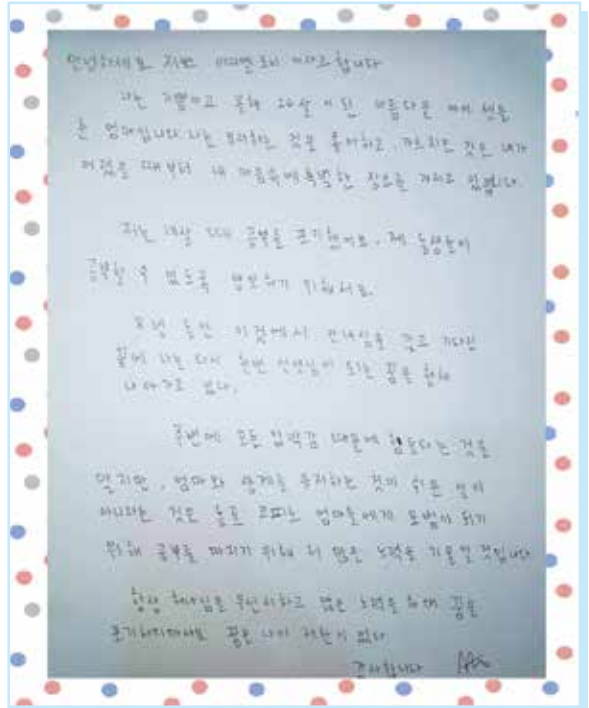
특별 후원 보고

■ 특별 장학생 소개



이번 8월 학기에도 본부에서는 앙헬레스와 세부의 총 1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중 8살 헤린이의 엄마, 조이(26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조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헤린이를 임신하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팬데믹 시기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최근 지역 시립대의 특수아동교육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시립대는 학비가 무료지만 교과서 등 기타 교구비가 필요하여 지원해주었습니다. 조이의 편지처럼,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이 꼭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 Special Thanks to...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신저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세부의 갑작스런 태풍 피해 소식을 들으시고 재난 복구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셨는데, 일산광림교회, 열림교회, 감리교 본부 등에서 구호금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밀알복지재단 등을 통해 김태양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7만여장의 마스크로 보다 안전한 한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과 염인숙 약사님께서 보내주신 비타민으로 아이들의 체력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요한 학장님께서 보내주신 봉대, 거즈 등 상비품을 통해서는 일상의 건강을 챙기고 있고, 이태경 대표님의 후원 신발은 첫 대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외 장학 후원, 신애 후원 등 특별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행복한 동행



협력 사역자 (단체)

- 언 론 사 : 국민일보(2013. 04. 업무협약 '아시아 희망 프로젝트')
- 업무협약단체 : 국민일보(사)국민여성리더스포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나눔재단 월드채널, 사색의향기문화원, 월드리더스재단, 지앤엠 글로벌 문화재단
- 사역협약교회 : 강릉중앙교회, 대림교회, 만석교회, 목양교회, 의왕우리교회
- 후원기업 : (주)선광티앤에스, (주)우주텔레콤, 주식회사 예일테크
- 후원교회 : 강릉중앙교회, 더크로스처치, 문호교회, 송도좋은교회, 압구정예수교회, 열림교회, 예수열방교회, 의왕우리교회, 이룸교회, 주다산교회

2021-2022 특별 후원자

- 일 반 :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선한목자교회, 김변호 목사님(영광교회), 차민경 대표님(닥터누가BBTaPe연구소), 사랑회(이미준님 외), 김다빈님
- 장 학 : 김범석 목사님(더좋은세상교회), 기쁨이있는교회, 김귀순 목사님(루디아 선교회), 김종수 교수님(前 한국뉴욕주립대 부총장), 남윤석 교수님(한국산업기술대), 최현수님, 박유경님(신애 후원)
- 구 호 : 열림교회(이인선 목사님),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 현 물 : 이태경 대표님(경주 모다아울렛 S마켓), 허요한 학장님(아세아선교신학교), 김태양 목사님(남양주참빛교회), 염인숙 약사님



공지사항 & 기도제목



세부 공부방 아이들이 꿈, 희망, 미래와 평화에 관해 그린 작품

●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코피노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완전한 해결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현지의 뎅기열과 잦은 태풍,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1만원 정기 후원으로 사역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 공지 안내

1.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22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입 필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2. 필리핀 메신저센터 도서관에 비치할 영어책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우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512호(광장동114 크레스코)
T. 02-722-0645~7 F. 02-737-5997 www.messengerin.com
(사)메신저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춘호 사무총장 김명기